

너를 사랑

MARSA KOREA | 2019 12
MAGAZINE 제 14호

동북아 시대의 해양구조, 해양안전, 해양교육, 해양환경은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MOK
JANG
WON

영도
목장원



숯불구이 목장원



한식뷔페 오채담



카페 드 봄



펍 레스토랑 테라스 M



야외웨딩/연회



OVISTA HALL
CONVENTION
OPHILLOS GARDEN

www.mokjangwon.co.kr TEL.051.404.5000



한국해양구조협회

MARSА KOREA MAGAZINE

2019 12
제 14호



발행처 한국해양구조협회
발행인 신정택
발행일 2019년 12월 26일
주소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TEL. 051)714-3695
FAX. 051)714-3095
기획·편집 김다현
디자인·인쇄 세종출판사
TEL. 051)463-5898

너를 사랑

표지 제자 「너를 사랑」
바람에 일어나는 물결을 의미하는 '너울'과 봉사정신의 밑바탕인 '사랑'의 합성어로 해양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숭고한 봉사정신이 담겨져 있다.

CONTENTS

Special Theme

- 04 신년사 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신정택
- 06 칼럼 안전한 항만관리를 위한 소견 _정재용 해양환경안전학회 회장
- 10 총재동정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동난방비 6억 전달'

MARSА News

- 11 본부 뉴스
 - 1) 2019년 전국지역대장 워크숍
 - 2) '국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대한민국' 대국민 안전캠페인 실시
- 13 지부·지역대 뉴스
 - 1) 전남동부지부, 민간구조세력 통합 선포식
 - 2) 울산지부, 민간해양구조세력 통합 선포식
 - 3) 충청남부지부, 통합 발대식
 - 4) 전북북부지부, 민간구조세력 통합 선포식
 - 4) 경남서부지부, 이웃돕기 성금 기탁
 - 5) 경북특수구조대장 이·취임식
 - 6) 마포구조대,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7) 부산지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해양정화활동
 - 8) 부산지부 '2019 자원봉사자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 수여
- 20

MARSА Story

- 22 지부이야기 봉사 열정으로 가득 채운 경남동부지부 이야기
- 24 안전을 부탁해 소중한 생명을 위하여,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
- 26 환경을 부탁해 광활한 동해바다의 아름다움을 위해 강원북부지부의 해양환경정화활동 이야기

MARSА Info

- 28 국내뉴스
 - 1) 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
 - 2) 조종면허 컴퓨터시험장, 전남 완도 등 4곳 추가 운영
 - 3)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 4)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 222건 적발
- 29
- 30
- 32

MARSА Notice

- 33 협회교육안내
 - 1) 2020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
 - 2) 2020년 『인명구조요원』 교육
 - 3) 2020년 『재난안전지도사』,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 34
- 35
- 36 협회후원안내

총재 신년사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바다 가족 여러분!



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신 정 택

경자년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2020년은 경사스러운 ‘흰쥐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쥐는 총명하고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각자의 소망들을 가슴 속에 품고 힘차게 정진함으로써 소원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협회는 민간해양구조대와의 통합을 통해 유일한 민간해양구조세력으로 재편되면서 1만 8천여 회원과 60여개 구조대를 갖추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구조구난공단(가칭)과 같은 장기적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해양구조구난전담조직 설립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간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선봉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에 전념해 주신 우리협회 모든 구성원들과 하나로 통합 되기까지 물심양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조현배 청장님을 비롯한 해양경찰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바다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민간해양구조세력의 통합을 발판삼아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회원상호간의 화합과 복지증진, 협회의 위상강화와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반대 등 여러 걸림돌로 이루어내지 못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을 위해 해양경찰과 합심노력하여 새해에는 우리의 오랜 숙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간해양구조세력이 완전 통합을 이룬 것을 계기로 조직관리와 활성화에 방점을 둬으로써 해양구조세력들이 통일된 하나의 조직 틀 안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셋째, 서두에 언급하였던 연구용역을 토대로 ‘구조와 구난’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우리협회를 ‘해양구조구난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등 우리협회가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바다 가족 여러분들을 믿고 험한 파도와 역경을 헤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각오와 바람이 온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회원여러분들께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자년 원단

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칼럼

안전한 항만관리를 위한 소견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해양환경안전학회 회장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
정재용



제가 2010년에 도입된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책임연구자로서 많은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으로서 심사에 참여하면서 항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 소회를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항만VTS의 해양경찰청으로의 이관에 따른 항만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자체관리 무역항의 항만안전관리, 세 번째는 부두접안능력 초과 선박에 따른 항만안전관리, 네 번째는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항만 수역시설의 기준 충족여부를 기술하고자 한다.

2019년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상교통관제사가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직제가 단일화되었다. 1993년에 VTS가 포항항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대부분의 항만에 VTS가 설치 운영되던 때인 2007년 연안에서 허베이스피리트의 사고에서 해양사고에 대한 현장대응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에서 VTS를 운영해야 한다고 하여 2010년에 진도 연안VTS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항만 VTS의 운영을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관제사가 합동으로 운영해오다가 지난달 11월에 인원과 운영 모두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된 것이다. VTS에 두 기관 소속의 해상교통관제사의 채용이 상이하고 행정상의 난맥이 존재하여 조직을 일원화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항만VTS의 운영주체를 두고 두 기관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던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듯하다. 지방해양수산청내에서도 항계내의 해상안전 등의 업무는 항만물류과가 담당하고, 항계밖은 선원해사 안전과에서 담당하여 유기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특히 세월호 이후 관리 감독을 하는 공무원 등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공무원을 포함한 안전관리

자들이 법적인, 신분적인 피해를 본 일부를 보고 몸을 사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보다는 복지부동하는 것이 신분상으로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해사안전법에 의해 실시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다보면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서로 자기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핑퐁게임을 하며, 항만내 안전을 위한 착수보고회나 최종보고회에도 참석이 지극히 부진하다. 이는 회의에 참석한 사안에 이후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거나, 제안한 안전대책이 예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게 되면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후 책임추궁을 당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같은 지방청내에서도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항만내의 안전을 위해 지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유기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는 무척 난감해 보인다. 처음 항만VTS를 해양경찰청으로 전부 이관하려고 하였을 때 항만의 효율성 및 항내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교통관제사가 반드시 필요하여 부득이 두 기관이 합동으로 항만VTS를 운영하였던 것이다. 인원 승진, 급여, 채용 등 두 기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일원화는 합리적으로 판단되지만 항만VTS의 역할인 항내 안전과 항만 효율성에 대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내가 근무하는 목포항의 경우, 해상교통관제사가 항만물류과 소속이어서 항만물류과에서 여러 항만의 안전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민원으로 제기되지 않으면 항만 상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목포 항계내 삽진산단내에 위치한 조선소와 차도선의 기점인 북항을 입·출항하는 수로에 실뱀장어 어선이 불법으로 무단방치되어 통항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는 사소하고 단순한 한 사례에 불과하며 항만VTS의 해양경찰청으로의 완전이관으로 인한 대부분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직제의 단일화는 VTS의 기능과 역할을 효율화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 직제의 단일화로 오히려 더 증폭·확대되지 않으려면 빠른 시일내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무역항은 국가관리 무역항과 지자체관리 무역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령항, 하동항, 삼천포항 등 많은 무역항 등이 충청남도나 경상남도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항만을 국가가 관리해야 좋은지 지자체가 관리해야 더 좋은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지자체관리 무역항의 경우에는 처음 항만이 운영되었을 때에는 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척수도 그리 많지 않았고, 항만 역시 민간기업이 전용으로 운영하는 사설부두 등이어서 지자체로 이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러한 부두들이 항만이 개발되어 선척이 증가하고 선박이 대형화되어 항만의 물동량과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되어 해상교통여건이 변화되어 안전관리가 더 절실한 시점이다. 가령 어느 항만의 경우 한전 전용부두인 2개 선석과 석회석부두 1선석이었지만 신보령부두, 3부두, 초대형 LNG 2선석, 추가 1선석 등 확대되었다. 당연히 해상교통여건 변화하여 항로, 정박지, 항로표지, 준설 등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자체의 항만 관련 부서는 인원의 잦은 변동과 전문성, 항만에 대한 인식부족을

경험하게 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다보면 항만을 이관 받은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항만에 적용하는 예선사용수칙이나 항만통항규칙 등이 전혀 없고, 항만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미흡함을 경험하곤 한다. 또한 국가부두가 아닌 민간부두이다 보니 안전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부두의 안전관리자 역시 해상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부두의 안전관리자 역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낮은 직급이며, 비용이 투입되는 안전 문제를 계속해서 주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항로내에서 어로작업을 하거나 정박지에 어망을 설치하여도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안전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 또한 어느 특정 지자체관리 항만에 해당하는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관리 항만이 비슷한 상황이다. 물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인식이 제고되고, 위해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안하고 있어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항만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수년동안 계속되어 오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부두접안능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항만의 부두는 항만 물동량과 선박의 크기를 예측하여 건설은 하지만 물동량이 증가하고 선박이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부두를 신축하거나 개량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국가에서 부두 접안능력을 고시한 능력보다 두배, 세배, 네배 이상 선박이 이용하고 있다. 군산항 제6부두의 경우는 부두접안능력이 2만DWT이지만 8만4천DWT 선박이 이용하고 있다. 부산 신항2부두도 5만DWT이지만 20만DWT급 선박이 입항하고 있다. 이는 어느 특정 항만만이 아니다. 한 논문에 의하면 2018년 도선 구간별 부두능력 초과선박 사례를 보면 접안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은 40.2%에 불과하고, 1.0-1.5배 초과가 18.3%, 1.5-2.0배가 12.2%, 2.0이상이 23.2%로 분석되고 있다. 부두접안능력(일반적으로 DWT, GT, TEU)이 정해지면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따라서 선박의 제원이 정해진다. 선박의 전장(LOA), 흘수, 선폭 등이 정해지면 이를 기준으로 항로의 폭, 항로의 수심, 부두 전면 수심, 선회장,



정박지(돛정박지) 등 선박이 입출항하는데 필요한 수역시설이 정해지게 된다. 또한 부두의 곡주능력, 부두의 강도, 방충재, 부두의 길이 등이 결정되어 선박의 입출항 안전 및 부두의 안전과는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요소이다. 부두접안능력보다 큰 선박은 당연히 선박의 길이나 흘수, 부두의 충격에 영향을 미치는 배수톤수가 커지므로 안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부두의 길이가 짧아서 선수라인과 선미라인을 잡지 못하는 부두가 있고, 심지어 선수나 선미가 부두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만조가 되면 부두 높이가 낮아 선미가 부두위로 올라간다는 경험을 토로하는 도선사를 만난 적도 있다. 항만의 효율을 위해 어려운 점을 이해할 수 있지만 전국의 모든 항만에서 부두접안능력을 초과하는 선박이 기본적인 해상교통안전진단조차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음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사안전법에서는 부두접안능력이 10%(거대선, 200미터 이상인 선박), 20%(그 밖의 선박) 증대될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위해요소를 도출하고 안전대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2010년 시행되었지만 입법취지를 본다면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부두접안능력이 10% 증대되면 안전진단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2010년 이전에 건설된 부두라 할지라도 부두접안능력이 10%를 초과하면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국 모든 항만에서는 부두접안능력 변경없이 두배 이상의 선박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17년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대상선박에 대한 제원이 변경되었다. 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대상선박에 대한 흘수가 커졌다. 이는 항만을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신규 부두를 건설할 때 적용되어야겠지만, 현재 운영 중인 항만에서도 변경된 설계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항로의 수심, 부두 전면수심 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시된 정박지의 반경이나 수심이 고시 대상선박의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 또한 신속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총재동정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동난방비 6억 전달’

- 부산시, 저소득 6,000세대에 세대당 10만원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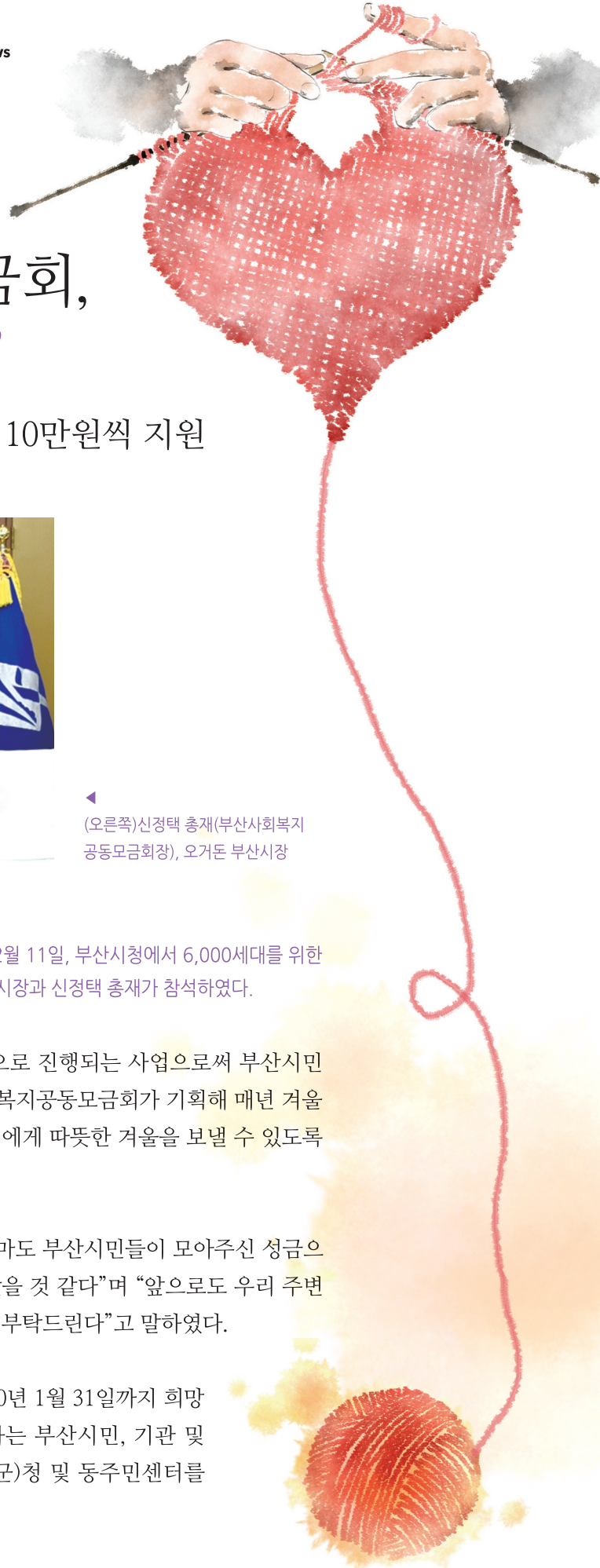
◀ (오른쪽)신정택 총재(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신정택 총재는 지난 12월 11일, 부산시청에서 6,000세대를 위한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신정택 총재가 참석하였다.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은 부산시민들이 모아주신 성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부산시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해 매년 겨울마다 진행하고 있다. 금년에도 부산지역 저소득 6,000세대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 1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하였다.

신정택 총재는 “일기예보를 보면 체감온도가 나오는데 아마도 부산시민들이 모아주신 성금으로 본 지원금을 받은 우리 이웃들은 체감온도가 쑥 올라갔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하였다.

한편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금년 11월 20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0나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부산시민, 기관 및 기업은 사랑의계좌(부산은행/부산공동모금회)와 각 구(군)청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금 및 현물로 기부참여가 가능하다.





2019년 전국지역대장 워크숍

우리협회는 지난 11월 30일, 장흥 회진다목적회관에서 '2019년 전국지역대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기념촬영



▲ 황주홍 위원장에게 감사패 전달



▲ 완도해양경찰서 감사장 전달

이번 워크숍은 지역대간의 소통과 화합, 구조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본회 민홍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완도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구조협력계장, 서해청 수색구조계장, 지역대장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장흥구조대와 마산구조대가 조직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장흥구조대 김성필 대장은 최근 구조대 사무실, 수상오토바이, 구조보트 및 장비, 긴급출동 차량 등 지자체의 지원사례 예시를 들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마산구조대 이용진 대장은 여름철 하계인명구조센터 운영과 관련된 우수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이어 김근호 본청 구조협력계장은 민간해양구조대 교육비 예산 확보문제와 국유재산법 개정, 피복비 증액 등 민간해양구조세력의 통합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였다.

본회 민홍기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해양사고의 최 일선에서 야전사령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 중인 지역대장님들을 모시고 개최되는 워크숍은 우리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조직 전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독도 헬기추락사고 및 제주도 대성호 화재 사고 등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에 여념이 없는 해양경찰과 우리 협회 소속 구조대원들의 안전과 건투를 빈다”고 전하였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서 장흥구조대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협회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황주홍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장흥구조대 권승민, 권승만 대원이 인명구조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완도해양경찰서장의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대한민국’ 대국민 안전캠페인 실시

우리협회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국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국민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금번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며 시민의 봉사참여 기회제공을 통해서 민간재난안전 봉사문화 저변 확대와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응책 숙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우리협회는 지역별 다수의 유동인구가 밀집한 곳을 선정하였으며, 6개월 간 서울 대흥역사 내, 부산시 초·중학교, 부산역과 수영역사 내, 통영 여객선 터미널, 통영시 초·중학교 등에서 총 3,000여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30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였다.

매회 캠페인에는 다년간 경력을 쌓아온 우리협회 전문 재난안전지도사 강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방법’ 등과 관련하여 체험교육을 진행하였다.

금번 캠페인에 강사로 참여한 우리협회 용산구조대



▲ 부산지부 강사들이 부산 수영역사 내에서 시민들의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장면

김경수 대장은 “다년간에 걸쳐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는 실적이 쌓임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변화도 조금씩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캠페인의 기회를 많이 만들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 서울지부, 대흥역사 내



▲ 경남서부지부, 통영시 여객선터미널



전남동부지부, 민간구조세력 통합 선포식



◀ 지부 깃발을 흔들고 있는 조병중 전남동부지부 협회장

우리협회 전남동부지부는 지난 12월 11일,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평생교육원 대회의실에서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일체감 조성 및 비전 공유를 위한 통합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협회 민홍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조병중 전남동부지부 협회장, 이철우 여수해양경찰서장, 전남동부지부 소속 구조대 및 민간해양구조대, 여수시, 여수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통합 선포를 시작으로 감사장 및 임명장을 수여하고 민간해양구조단체로 함께 나아갈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홍기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2원화되어 있던 민간해양구조세력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곳 여수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와 구조 활동은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최근 화두로 등장한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문제, 일명 워라벨 문화가 안전한 해양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고 말하였다.

금번 통합 선포식을 통해 여수해경 6개 파출소에서 운영 중인 민간해양구조대원 337명은 전남동부지부로 통합돼 명실상부 민간해양구조세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 구조체제 확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울산지부, 민간해양구조세력 통합 선포식

우리협회 울산지부는 지난 11월 29일 울산해양경찰서 청사에서 민간해양구조세력 통합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 단체기념촬영

이번 행사에는 본회 민홍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최영목 울산지부협회장 및 울산지부 소속 대원들과 민간해양구조대원 80명, 임명길 울산해양경찰서장 및 경찰관 30여명이 참석하였다.

현재 울산 관내에는 울산지부를 포함한 민간해양구조대원 약 470명이 활약하고 있으며, 지역 바다사정에 정통한 어민들과 해양종사자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세력은 각종 해상사고에서 예인 및 수색 지원 등 다양한 구조 활동을 통해 안전한 울산바다를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울산지부는 울산해경과 함께 지난 2018년부터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통합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조협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또한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내 지자체들의 협조를 얻어 동구, 울주군, 기장군 3개 지자체에서 '수난구조참여자 지원조례'를 제정,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한 국민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최영목 울산지부협회장은 “민간해양구조세력의 통합을 통해 조직이 확장됨으로써 민·관 협력구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충청남부지부, 통합 발대식



단체기념촬영 ▶

지난 11월 26일, 우리협회 충청남부지부는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충청남부지부 통합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중부청 관내 지부협회장, 충청남부지부 임원 및 대원 500여명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보령해양경찰서장, 김태흠 국회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노박래 서천군수 등 외부인사를 포함해 총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금번 통합발대식은 지난 3월부터 보령해양경찰서에서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구조협회를 홍보하고 회원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이뤄진 결과이다. 뿐만아니라 지역 내 해양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총 10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부 조직도 및 지역대장 선출을 통해 충청남부지부 설립과 통합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로써 충청남부지부는 금번 발대식을 통해 구조대(3개), 구난대(5개), 봉사대(5개) 등 지부를 중심으로 조직개편 되었으며 서해지역의 안전한 바다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구자영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거친 파도와 싸워가며 현장 구조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해양경찰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 준 충청남부지부 임원 및 회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해양구조세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하였다.

전북북부지부, 민간구조세력 통합 선포식



▲ 단체기념사진

지난 10월 7일, 우리협회 전북북부지부는 군산해양경찰서 대강당에서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일체감 조성 및 비전 공유를 위한 통합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북부지부, 민간해양구조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효율적인 민·관 합동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군산해경 3개 파출소 관할 민간해양구조대 313명이 전북북부지부로 통합되면서 명

실상부 전북지역의 민간해양구조세력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김상겸 전북북부지부 협회장은 “이번 민간해양구조세력의 통합으로 관내 지역에서 좀 더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으며 구조역량 강화 등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제를 잘 유지하여 바다를 지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경남서부지부, 이웃돕기 성금 기탁

지난 12월 3일, 우리협회 경남서부지부는 통영시청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50만원을 ‘살고 싶은 통영 행복펀드’에 기탁 하였다.

경남서부지부는 협회 창립일부터 지금까지 해양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모금까지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부터 해양환경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해온 경남서부지부는 캠페인 1회마다 10만 원씩을 에코적립금으로 마련하여 총 150만원의 성금을 모아 기탁하였으며 2018년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금년까지 이어오고 있다.



▲ 강석주 통영시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장중철 협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성금 기탁 후 기념촬영

경남서부지부 장중철 협회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하였다.



경북특수구조대장 이 · 취임식

지난 11월 15일, 우리협회 경북특수구조대는 포항 리메르웨딩컨벤션에서 경북특수구조대장 이 · 취임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곤 경북지부 협회장과 이종욱 포항해양경찰서장, 박명재 국회의원, 신임 황승욱 대장 및 경북특수구조대원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였다.



▲ 단체기념사진

김복수 초대 경북특수구조대장은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동해안의 크고 작은 해양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거침없이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행사가 있던 날에도 김복수 대장은 독도 소방 구조헬기 실종자 수색 지원 관계로 참석하지 못할 만큼 바다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

김복수 대장에 이어 제2대 대장으로 취임하는 황승욱 신임대장은 현재 포항시 서평협회 회장, 경북요트협회 대의원, 포항청년회의소 이사를 역임하며 지난 2018년부터 경북특수구조대 부대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황승욱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김복수 대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기술 향상과 구조·수색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 등을 통해 살기 좋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견장을 달아주고 있는 이종욱 포항해경서장과 김태곤 협회장



▲ 구조대 깃발을 흔들고 있는 황승욱 신임대장

마포구조대,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김철재 마포구조대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업무 협약식 후 기념촬영

지난 11월 12일, 우리협회 마포구조대는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협약식은 양 기관의 정보와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 마포’ 만들기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상호 협력하고자 진행되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마포구조대는 분기별로 공단 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며 구민의 생명 보호에 앞장선다. 또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마포구조대가 실시하는 대국민 안전 캠페인 등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며 협력하기로 하였다.

마포구조대 김철재 대장은 “지역의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한 마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협약식 후 공단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부산지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해양정화활동

지난 10월 28일, 우리협회 부산지부와 부산해양경찰서는 11월 25일날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개최지인 부산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로 조성하고자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이현 부산시의원, 박승규 부산해양경찰서장, 김홍희 남해해경청장, 윤준호 국회의원, 이춘재 부총재, 민흥기 이사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에 실시된 캠페인은 부산 관내 6개 항포구 및 송도해수욕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본회 민흥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정연송 부산지부협회장,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박승규 부산해양경찰서장, 윤준호 국회의원, 이현 부산시의원 등 부산지부 소속 대원들과 유관단체를 포함하여 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양정화활동에는 잠수장비, 어선, 크레인 등이 동원되었으며, 금번에 진행된 해양정화작업은 총 70톤이 넘는 쓰레기가 수거되면서 바다오염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연송 부산지부협회장은 “바다의 소중한 물은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인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부산 시민들과 어촌계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MARSA NEWS | 지부/지역대 뉴스 |



▲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시범 중인 부산해양경찰



▲ 크레인으로 수중쓰레기를 수거 중인 부산지부 대원들

부산지부 '2019 자원봉사자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 수여

우리협회 부산지부는 지난 12월 10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자원봉사 행복도시 비전선포식 및 부산자원봉사자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 수상자 단체기념사진



‘2019 부산자원봉사자대회’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맞아 매년 12월에 1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돌이켜 보며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해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이대근 한국자원봉사연합회 고문 등 자원봉사자단체 원로 및 유공자와 15개 구군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산지부에서는 박영철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을 받은 부산지부를 비롯해 정부포상 26명, 시장표창 65명, 시의회 감사장 5명, 교육감상 8명, 자원봉사 금배지(누적 3000시간, 해당연도 500시간 이상) 38명, 자원봉사 명예장(누적 1만 시간 이상) 16명,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수상작 10명 등 총 16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지부는 2013년 3월 창립 후 5개 구조대를 발대하고 200여명의 전문구조대원, 3,000여명의 어민 및 봉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중 및 연안 정화활동, 청소년·일반인 대상 해양안전교육, 해상 실종자 수색 및 구조작업, 좌초·침몰·화재 선박에 따른 구조 및 인양 활동, 대국민 안전캠페인 활동 전개 등 괄목할만한 많은 성과들을 보유하며 부산시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 오거돈 부산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박영철 사무국장



지부이야기 _경남동부지부

봉사 열정으로 가득 채운 경남동부지부 이야기

우리나라 동남해안 일대는 기후가 온화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섬들이 해상에 점철되어있는 다채로운 풍경으로 해상관광지를 이루고 있다. 이곳의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우리협회 경남동부지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도서지역까지 손을 뻗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회창립 후 6년간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봉사에 헌신해 온 경남동부지부를 들여다보았다.

지부운동을 위한 다각적 행정적 방법 제시 '경상남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

진해, 마산 인근 해안 및 도서 지역들의 해양안전과 환경정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온 경남동부지부는 지부창립부터 지금까지 다각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지부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수단을 강구해왔다.

관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건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경상남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지역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제시한 공모사업을 인정받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15년에는 '창원 관내 항포구 수중 및 연안 정화활동 & 예방순찰활동'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3년간 환경정화활동에 들어가는 소정의 비용들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사업 유지 기간은 총 3년이며 이 사업으로 2017년까지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고 2018년 '창원 관내 도서(소고도) 하계 인명구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경남동부지부는 또다시 새롭게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하였다.



▲ 소고도에서 하계인명구조센터를 운영중인 경남동부지부

매년 7천여명의 피서객들이 찾는 진해 인근의 소고도는 지자체에서도 관리하지 않는 무인도서로 경남동부지부가 여름철 한 달간 상주하며 응급환자 이송, 긴급구조, 응급처치, 물놀이 안전예방교육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일조하는 경남동부지부의 봉사활동이 인정받아 다행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금을 이 어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해양정화활동에 나서고 있는 경남동부지부 대원들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 제정

경남동부지부는 일찍이 전국지부 최초로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5년 10월부터 진행된 조례안은 지부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던 중 박춘덕 시의원과 공감대 형성으로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1월

에 발의된 이 조례안은 같은 해 4월 5일, 제65회 창원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7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례에 따라서 해양단체가 수행하는 해양환경오염 감시 및 해양정화활동, 해양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보조금 지원신청이 가능해졌다. 연평균 50톤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남동부지부는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 봉사를 위해서라면! 대원들의 모금으로 구매한 '구조선'

지난 10월 20일, 진해루 창원수상스키장에서는 경남동부특수구조대의 '구조선 진수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동부지부 김성중 협회장과 특수구조대원들이 함께 하였다.

주로 진해 인근의 소고도, 초리도 등 무인도서의 환경정화활동 및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남동부특수구조대는 기동력과 이동성, 활동영역의 확장 등과 관련하여 구조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해왔다. 이에 경남동부특수구조대원들은 뜻을 모아 성금을 모금하여 총 2척의 구조선을 구매하였다. 각 1.07톤과 2.65톤의 구조선은 모터보트의 일종으로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며 가동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고도 같은 경우 배가 크면 계류장에만 접안이 가능하여 환자 이송의 어려움을 종종 겪었으나 금번 구조선의 경우 크기가 작아 모래사장 쪽으로 바로 접안이 가능하여 환자 이송에 용이하다. 구조선에는 구명환, 레स्क튜브, 구명조끼, AED 등 각가지 구조장비 등이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구비되어 있다.



▲ 경남동부특수구조대가 직접 구매한 구조선 2척

경남동부특수구조대가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사비를 모아 구매한 구조선은 봉사를 하고자 하는 대원들의 의지와 사명감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도 하면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 2020년, 새로운 항해를 위해

경남동부지부는 현재 지자체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소정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대원들의 상황은 열악하다. 지역행사나 다양한 곳에서 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만 재정적 지원이 따라주지 않아서 영역확장에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한다. 꼭 필요한 구조선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어떤 예산지원도 없이 대원들의 성금을 통해 자체구매를 한 것처럼 마음만 큼 상황이 따라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구상과 봉사영역의 확대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부의 각 구조대들은 매년 2회 이상의 자체 훈련을 진행하며 구조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연말 총회, 송년회 등을 열어 자발적으로 서로의 공로를 격려하는 시상식 등도 개최한다. 구조대장이 직접 상을 만들어 내부적으로 포상을 해주는 등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서로를 이끌어주고 있다.

경남동부지부는 다가오는 2020년에는 기존의 활동영역에서 더 나아가 교육활동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창원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만들고자 지역의 기관들과도 MOU를 맺으며 협력해오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인명구조, 응급처치와 같은 해양안전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기획 중에 있다. 어려

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쉽게 주저앉기보다는 다각적 방법 등을 모색하며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 경남동부지부는 다가오는 2020년에는 봉사의 열정을 담은 구조선과 더불어 새로운 봉사의 항해를 열어 갈 예정이다.



안전을 부탁 海

소중한 생명을 위하여,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

_ 서해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충남북부지부 최태선 대장

지난 10월 21일, 평택해양경찰서에서는 격렬한 파도에 맞서 5명의 생명을 구한 우리협회 경기충남북부지부 소속 최태선 대장에게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지난 10월 8일 오전 10시 35분, 충남 당진시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당일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서해바다는 4~5m까지 요동치는 거친 파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해양경찰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최태선 대장은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 다른 대원들에게 구조요청 연락만 취한 채 혼자서 구조선을 이끌고 사고지점으로 출동하였다.

날씨의 영향으로 거센 바람과 시야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신고를 받은 후 10분 내 현장에 도착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전복된 낚시어선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5명의 승객이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최태선 대장은 신속하게 5명의 승객들을 구조선에 태웠고 중·경상을 입은 승객으로 인해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환자이송까지 마무리 하였다.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고 신속하게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25년간 어업 활동을 해오며 20년 넘게 민간해양구조대로 활동해온 경력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서해바다에서 구조활동을 해온 것은 나에게 익숙한 일이다. 한 해 동안 작게는 수십 건 많게는 100여 건에 달하는 구조, 구난, 선박예인 활동 등을 하고 있다”

25명의 민간해양구조대를 이끌어온 최태선 대장은 구조선을 보유할 만큼 구조활동에 적극적이다. 김석진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최태선 대장에게 해양경찰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인명구조 명패를 수여하였다. 또한 민간해양구조세력 협력 강화에 기여한 경기충남북부지부 한상현 사무국장에게도 해양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 왼쪽부터 평택해경경비구조과장, 최태선 대장, 김석진 평택해경서장, 배금란 경기충남북부지부협회장

●○ 한강유역의 안전지킴이, 서울지부



▲ 왼쪽부터 강인철 성동구조대장, 이방언 인천해양경찰서장, 공민 서울지부 협회장

바다를 대신해 서울지역은 내륙을 따라 큰 물줄기가 뿔어있는 한강이 있다. 한반도의 중앙부 평야지대를 차지하는 한강 하류부는 역사적으로 문화발달의 터전이기도 하며 강을 가로지르는 30개가 넘는 교량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만큼 사고도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21일, 인천해양경찰서는 한강파출소에서 서울지부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금년에는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인명구조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사고 소식이 날때마다 매번 서울지부 대원들이 구조 및 수색활동에 참여하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이에 인천해양경찰서는 그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한강공원 인근 한강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수영경기 도중 30대 남성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다. 해당 경기는 대한철인3종협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최로 열린 행사로 수영경기가 진행될 당시 한강 물살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 당일, 연락을 받은 서울지부 김경수 용산구조대장, 강인철 성동구조대장, 명유천 영등포구조대장은 개인보트를 이용하여 수색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한강의 물속은 시야확보가 거의 되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이 많았다. 10월 1일 오전 6시 45분쯤, 마포구 월드컵대교 부근 한강 수면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 동작대교 투신자 수색작업

▲ 마포대교 한강시민공원 투신자 수색작업

하지만 연이어 마포대교 근처 한강시민공원과 동작대교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투신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10월 18일과 11월 7일 날에도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수색구조에 들어갔다. 동작대교 투신자의 경우 서울지부 대원들이 시신을 직접 발견하여 119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독도 헬기 추락사고, 민간잠수사 투입에 참여한 협회 대원들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경, 중앙119구조본부소속 헬기가 해상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중 독도 인근 200~300m 지점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헬기에는 환자와 보호자, 소방대원 5명 등 총 7명이 타고 있었다.

실종자 수색작업은 총 39일이 걸렸으며 그동안 수색당국은 함선 연 667척, 항공기 172대, 잠수사 3,300여명 등 대대적인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였다. 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열흘 뒤인 지난 11월 11일, 대구소방본부에서는 독도 소방구조헬기 추락사고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 대책회의가 열렸다.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민간잠수사를 투입하기로 결정되면서 우리협회 김복수 경북특수구조대장이 민간잠수사를 대표하여 총괄대장으로 참석하였다.



▲ 독도 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수색작업 중인 우리협회 대원들

11월 14일부터 시작된 민간잠수사 수색은 김복수 경북특수구조대장, 정재완 포항구조대장, 김금철 포항구조대원, 손병욱 경북특수구조대원, 김영규 경북특수구조대원, 경기충남북부지부 한상현 사무국장 등 심해잠수경력이 오래된 6명이 참여했으며 우리협회를 포함하여 총 18명의 민간잠수요원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작업은 오전 일찍이 시작되어 저녁 5시쯤 되어 끝났으며 총 11일 동안 계속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3명의 실종자를 남겨둔 채 지난 12월 8일, 39일 동안의 수색작업은 종료되었다.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었다. 11일 동안 심해를 잠수하였지만 결국 성과가 없었다. 차가운 바닷속을 헤매다 보니 수색을 끝날 때쯤 다같이 몸살을 앓기도 했다. 결과가 이렇게 되어 마음고생이 더욱 심했다.”

금번에 경북특수구조 대장직을 신임 황승욱 대장에게 인계하기로 한 김복수 대장은 이 · 취임식에 참석을 못할 만큼 독도헬기추락 사고 실종자 수색에 매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함께 내비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 이름 없는 바다의 영웅들을 생각하며

현재 17,6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협회는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해양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면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작업, 구난작업 등 위험천만한 바닷속을 거침없이 뛰어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언론에 구조소식이 전해진 사례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대외적으로 성과가 알려지지는 않는다. 일상의 하나로 치부하며 그저 사고가 났을 때 재빠르게 달려가서 구조했을 뿐 크게 알려질 일은 아니라는 것이 대원들의 소박한 마음씨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면적만 남한의 4배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바다는 사실은 ‘육지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분주한 세상이 매일 펼쳐지고 있다. 해양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해상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해양안전을 수호하는 이들이 바로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이다. 이들의 몸에 배어있는 책임감은 의무가 아니며 어떤 보상이나 이익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열악한 상황에서 생계를 뒤로한 채 구조활동에 매진해온 대원들은 그저 오랜기간 바다와 함께 해온 삶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숨은 영웅들의 노고가 2020년에는 좀 더 조명받고 격려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환경을 부탁 海

광활한 동해바다의 아름다움을 위해

강원북부지부의 해양환경정화활동 이야기



강원도는 동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道)로서 해안선 길이가 364.133km(그 중 섬의 길이 64.727km)이다. 해안에는 원산만, 송전만, 고성만, 답촌만 등 크고 작은 만들과 여도, 알섬, 국섬을 비롯하여 60여개의 섬들이 있다. 다양한 해양생물과 풍부한 해양자원, 에너지 등 무궁무진한 공동의 자산이 있는 이곳 광활한 동해바다에서 우리협회 강원북부지부는 바다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보존하여 후대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부창립 후 첫 해양환경정화활동

금년 3월 전국적인 민간해양구조세력 통합의 첫 포문을 연 강원북부지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재창립되었다. 총 8개의 구조대를 발대하고 444명의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을 협회로 영입시켰다. 강원북부지부 소속 대원들은 지역의 어선보유 어업 종사자 및 전문 잠수사이다. 제2대 협회장으로 취임한 서일민 협회장 또한 잠수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할 만큼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해양전문가이다.

지난 10월 23일, 지부창립 후 첫 해양환경정화활동을 속초 동명항에서 가졌다. 20명의 전문 잠수대원들이 참여한 이번 활동은 동해 심해를 잠수하여 1톤 가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지부 창립 후 첫 정화활동이지만 대원들은 이미 20년 이상 이곳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주기적으로 해양정화활동을 꾸준히 해온 전문 해양봉사자들이다.

주로 속초 동명항, 남애항, 인구항, 사천항, 속초항 등 강원도 전체 항구들을 돌며 수중에서 바다를 어지럽히는 해양쓰레기들을 수거하여 동해바다를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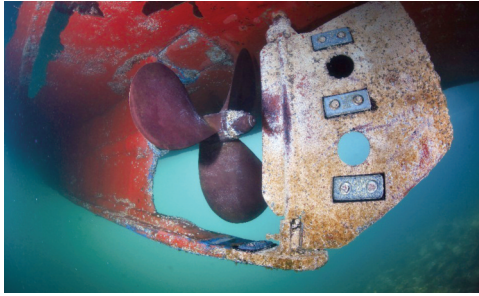


▲ 강원북부지부 대원들이 해양환경정화활동을 위해 모였다.



▲ 해양환경정화활동을 위해 수트를 착용하고 있는 대원과 수중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대원





▲ 대원들이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 선저 모습

해양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선저점검

강원북부지부는 금번 해양환경정화활동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인근 항포구에 정박 되어 있는 어선들의 선저검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해상부유물로 인해서 선박 추진기 감김현상, 선박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활동은 어민들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이 한팀을 이룬 총 20명의 대원들이 선저검사에 나섰으며 수중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빈틈없이 확인하고 부유물 제거작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날 강원북부지부 대원들이 작업한 선박만 20척에 달한다.

강원북부지부의 심재호 사무국장은 “선저검사는 저희도 봉사경력이 20년이 넘었지만 처음 해본다. 어민들에게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전에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된다.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강원북부지부

지부창립 후, 강원북부지부는 바다지킴이로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금번에 첫 해양정화활동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분기별로 전체 구조대가 함께하면서 그 활동 영역을 더 넓혀나갈 계획이다.

강원북부지부는 해양환경정화활동 뿐만 아니라 이미 강원도 지역의 해양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해양사고에도 수차례 출동하면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나 서퍼구조대를 발대하한 강원북부지부는 해수욕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서퍼 관련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2차 사고를 막고 있다. 이어 지난 10월 13일에는 강원 낙산항에서 너울성 파도로 침몰 된 어선을 인양하는 등 해양봉사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있다.

서일민 협회장은 “구조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좀 더 확장된 활동을 위해서 대원들의 구조 전문교육도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구조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다. 광활한 동해바다를 지키기 위해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회원 추가 영입에도 힘쓸 예정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내뉴스

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

어업소득 비과세 금액을 현재 3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으로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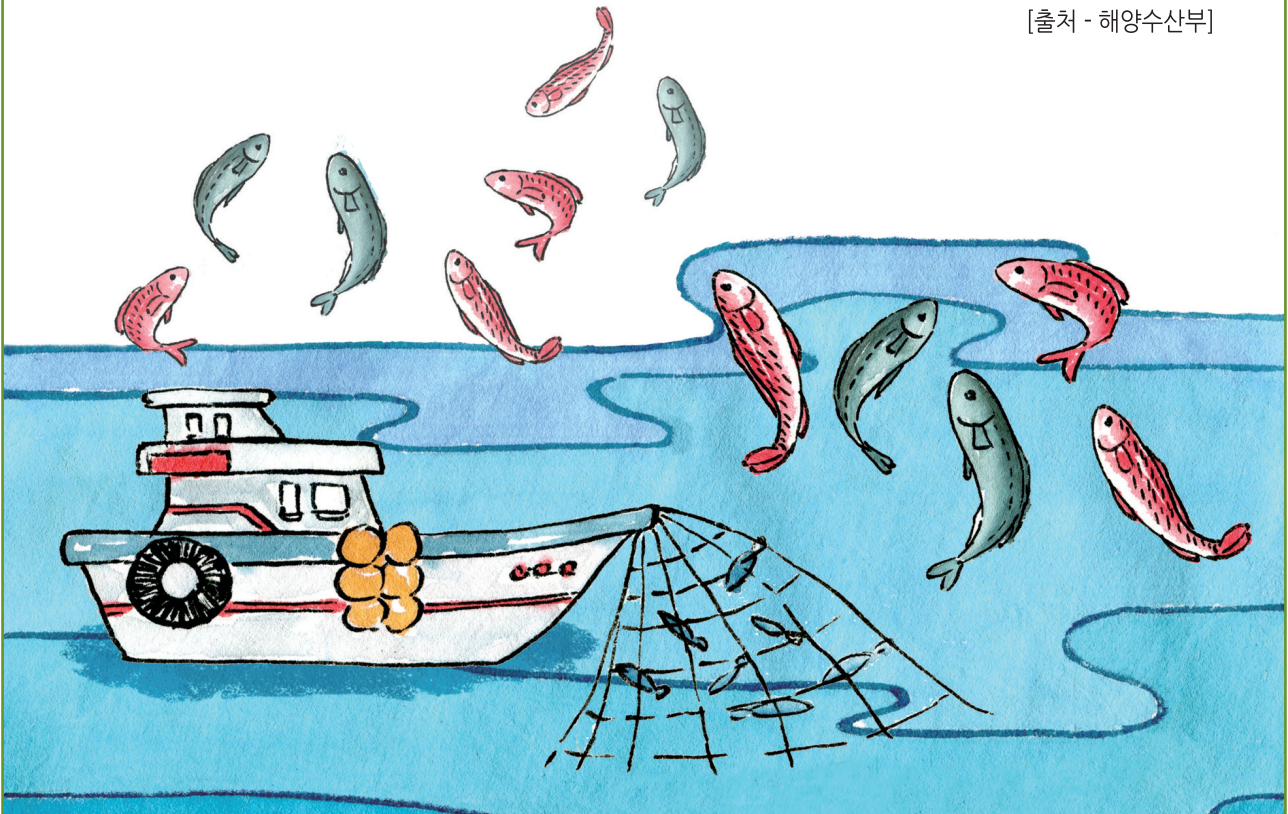
그간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되어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 이러한 세제혜택이 농업분야에 비해 훨씬 적었기 때문에, 농·어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업분야의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어로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5천만 원)을 정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소득은 5천만 원, 양식소득은 3천만 원까지 각각 비과세되며,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 원(어로 5천만 원+양식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조종면허 컴퓨터시험장, 전남 완도 등 4곳 추가 운영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신분증과 증명사진 지참 시 응시 가능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필기시험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2월 4일부터 전남 완도·여수, 경기 안산, 경남 사천 등 4곳에 컴퓨터 시험장을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추진기관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조종면허 필기시험은 정기시험과 상시시험으로 구분된다.

상시시험은 사전 접수 후 정해진 날짜에 맞춰 시험에 응시하는 정기시험과 달리 원하는 시간에 현장 접수를 한 뒤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현재 인천, 전남 목포, 부산 등 14곳에서 컴퓨터시험장을 운영 중이다.

【전국 조종면허 컴퓨터시험장 운영 현황】

인천	동해	태안	목포	부산	평택	여수	통영	포항	군산	울산	제주	창원	속초
'05년	'07년	'07년	'16년	'16년	'17년	'17년	'17년	'17년	'18년	'18년	'18년	'19.7.1	'19.7.8

다만 경기·전남·경남권역의 경우 조종면허 응시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나 컴퓨터시험장이 한정돼 있어 응시생들은 시험을 보기 위해 1시간 이상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전남 완도해양경찰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녹동파출소, 경기 평택해양경찰서 안산파출소, 경남 통영해양경찰서 사천파출소 등 4곳에 컴퓨터시험장을 마련했다. 이들 시험장은 응시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비교적 찾기 쉬운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청사 내에 마련됐다.

완도해양경찰서 컴퓨터시험장은 경우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 오후 5시 상시 운영된다. 여수 녹동·평택 안산·통영 사천파출소 컴퓨터시험장의 경우 주 1회 이상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간 뒤 응시생 수요 등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새로 운영되는 이들 컴퓨터시험장에서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를 지참하고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방문하면 된다. 1일 최대 2회까지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https://imsm.kcg.go.kr/WR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컴퓨터시험장 확충으로 조종면허 시험 응시자들에게 더 많은 시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양경찰청]

국내뉴스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내륙어촌 재생 시범사업 대상지 6개소도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12일(목)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

2019년도 70개소에 이어 2020년도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1천억원, 지방비 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낙후된 어촌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20년도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난 4월 15일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 요건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은 크게 4가지이다. 우선 시·도 평가(3점)를 도입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형화된 사업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유형 분류를 삭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계획 마련을 유도하였다.

둘째, 동일 시·군·구에서 2개소 이상 신청 시 사업비를 평균 100억원 이하로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모신청을 지양하였다. 다만 선착장 보수, 대합실 개선, 안전 인프라 조성 등 여객선 기항지 관련 사업은 사업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해상교통안전 확보라는 어촌뉴딜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였다.

셋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였고, 서면평가 시 지역주민대표가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지역협의체는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기구로 사업 전체 과정에 걸쳐 의사결정 및 갈등관리 등의 역할 수행

마지막으로, 시·군·구별 2019년도 사업추진 성과(기본계획 적기 수립, 예산 집행률 등)와 어촌계 개방 노력도(최근 5년간 어촌계 정관 개정, 신규 귀어인구 현황)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준비성 및 제반여건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였다.

《20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이러한 특징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한 결과, 11개 시·도, 58개 시·군·구에서 250개소를 신청하였으며, 대상지에 대해 민·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9.30~10.1, 10.7~10.8)와 현장평가(9.25~11.22), 종합평가(12.11)를 거쳐 최종 120개소를 선정하였다.(경쟁률 2.1:1)



서면평가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두루 평가하였고,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현장평가는 지역주민 면담 및 현장시찰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지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열쇠이므로, 지역민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120개소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37개소, 경남 23개소, 충남 14개소, 경북 11개소, 전북 9개소, 강원 5개소, 제주 5개소, 인천 5개소, 경기 5개소, 부산 4개소, 울산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개소 당 평균 100억원으로 3년간 총 1조 2천억원(국비 8,400억원, 지방비 3,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국비 기준) '20년 2,100억원, '21년 3,360억원, '22년 2,940억원

사업내용별로 살펴보면 120개소 모든 대상지에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 인프라 설치, 주민 쉼터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을 특성에 맞게 추진하여 어촌 주민이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된 대상지 중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여객선 기항지 16개소는 선착장, 대합실 등에 한해 사업비를 지원하며, 차년도 사업 공모 신청 자격은 유효하다.

또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마을기업을 91개소에서 구성하여 갯벌체험, 해양레저체험, 지역특산물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마을카페 등 소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촌의 소득증대와 활력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1월 중 신속하게 자금을 배부하여 상반기 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단기 완료가능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과 같은 생활SOC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해양경찰청]

국내뉴스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 222건 적발

인터폴 주관, 10월 한 달간 전 세계 58개국 동시 단속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0월 한 달간 일제단속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해양환경을 해치는 행위 2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10월 1일~10월 31일 전 세계 58개국이 동시에 진행했다.

※ 국제범죄의 정보교환, 범죄자 체포·인도 협력 및 경찰기관의 발전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194개국이 가입(우리나라 1964년 가입)

이는 선박 및 육상으로부터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각각 611명, 317명 등 총 928명을 투입해 국내선박 262척, 외국선박 224척 등 총 486척의 선박과 74개의 육상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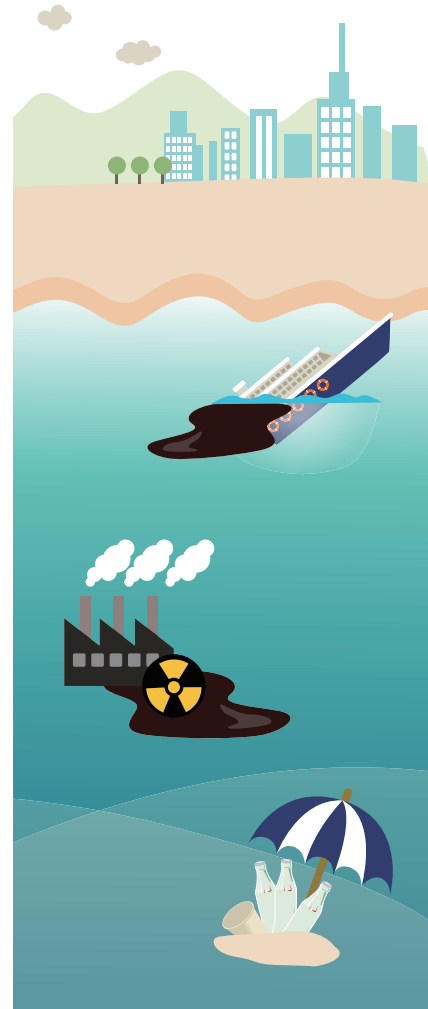
단속은 폐유, 폐기물, 유해물질 배출행위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적법처리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단속 결과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33건(15%), 경미위반사항 68건(31%), 행정질서위반 18건(8%), 의무규정위반 3건(1%)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100건(45%)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 기관별로 해양경찰청 173건(78%), 해양수산부가 49건(22%)을 적발했다. 국적별로는 국내선박 170건(77%), 외국선박이 52건(23%)이 단속됐다.

이와 함께 단속기간 중 통항선박 조사, 기름시료 비교·분석 등 추적조사를 통해 8월 25일 포항 구룡포, 10월 14일 여수 계동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행위자를 찾아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오염물질을 고의적으로 무단배출하거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해양경찰청]



협회교육안내

2020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생 모집 안내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는 「수상구조기술향상과정」의 일환으로

2020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구조사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개요

- 과 정 명 :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 주 관 : 한국해양구조협회
- 교육대상 : 수영 100m 이상 가능한자, 해경특공대(경찰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
- 교육 및 접수기간 : 연중 주말반 운영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 교육인원 : 과정별 각 40명 (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강의실 및 수영장
- 교 육 비 : 금500,000원 (수협 1010-1020-6229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영장입장료 포함
- 최초접결지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117호 강의실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장), 신분증

■ 주요사항

-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며, 본 교육기관에서는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64시간만 진행됩니다. 시험일정 및 장소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교육수료 후 개인이 직접 해양경찰청에 신청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상구조사 교육(64시간) 미 이수 시 추가 보충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보충교육 일정은 교육상황에 따라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 교육시작일 부터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수강취소를 원하시면 교육 전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문 의 : T. 051-714-3122, F. 051-714-3095, E. kmrc119@hanmail.net
-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imsm.kcg.go.kr>

협회교육안내

2020년 『인명구조요원』 교육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요구조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인명구조요원 육성

| 2020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0년 1월 ~ 12월 (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관할 지역 실내수영장
- 대 상 : 요원 - 만 16세 이상 누구나
강사 - 요원 자격이 있는 자
- 교육과정 : 인명구조요원 교육(40시간), 인명구조강사(60시간)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오리발, 세면도구, 필기도구, 활동복, 활동화, 사진2매
- 교 육 비 : 요원 20만원 / 강사 3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16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등
 - 인명구조법 (24시간) / 구조영법, 종합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인명구조 교수법 (20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자격명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인명구조요원(2014-1485)
인명구조강사(2014-5724)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인명구조요원 / 인명구조강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교육안내

2020년 『재난안전지도사』교육

각종 재난·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20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0년 1월 ~ 12월 (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재난 2급 이수자로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2급 - 재난 3급 이수자
3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필기도구, 활동복, 활동화, 사진2매
- 교 육 비 : 1급 30만원 / 2급 10만원 / 3급 5만원
- 교 육 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재난안전의 의미(8시간)
 - 위급시 행동요령 및 구조구급 (8시간)
 - 재난안전 교수법 (50시간)

- 자격명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372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 상기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0년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20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0년 1월~ 12월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해양 2급 이수자로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2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필기도구, 활동복, 활성화, 사진2매, 수영복, 수모, 수경
- 교 육 비 : 1급 30만원, 2급 10만원
- 교 육 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해양안전 · 생존 등 해양사고예방의 의미(8시간)
 - 선박화재, 충돌, 침수 등 위급 시 행동요령(8시간)
 - 해양안전 · 생존 등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281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 상기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후원안내

1) 월 정기후원 안내

- 아래의 계좌번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1010-1020-6195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2) 특정목적사업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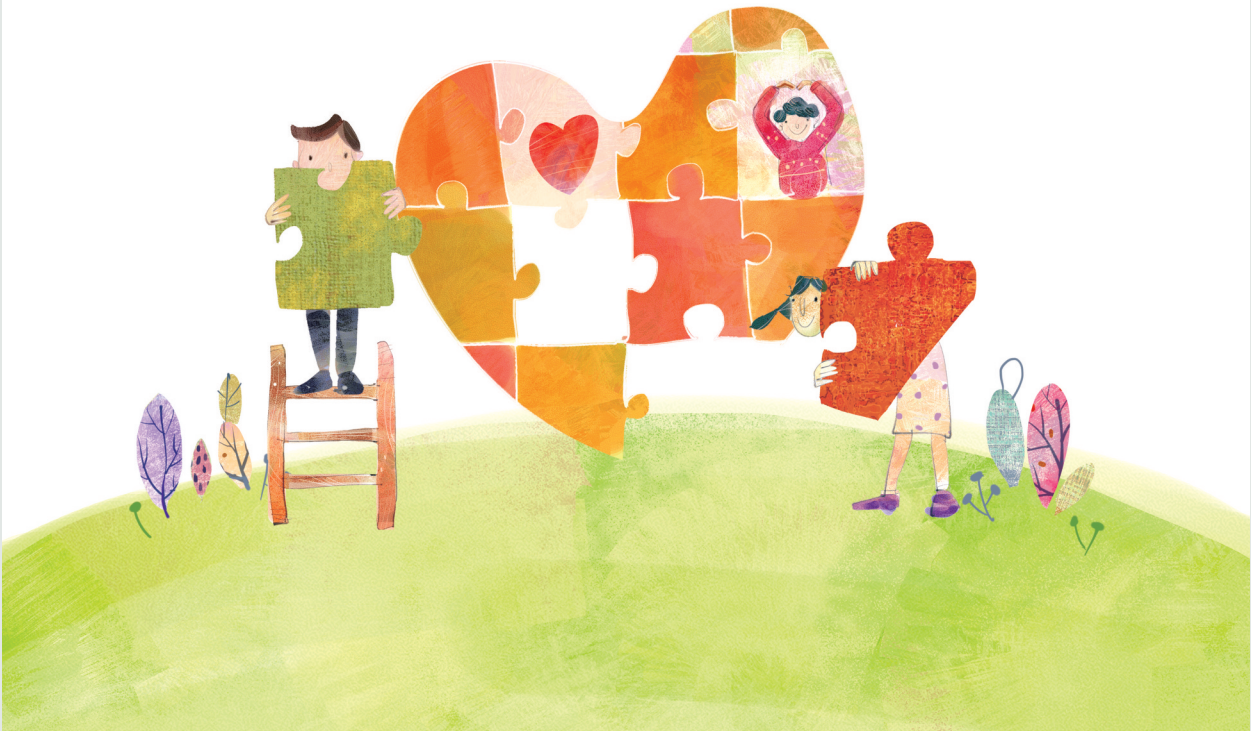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3)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4) 문의

| 전화 : 051-714-3695 | 팩스 : 051-714-3095 | E-MAIL : kmrc119@hanmail.net |





2020년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상구조사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수상구조사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을 부여받은 자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단체(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64시간) 후 해양경찰청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함



평가 과목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역할 및 혜택 ★★★★★

수상구조사는 해경특공대(경찰 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들에게 가산점 등의 혜택이 있음.



교육과정 안내

교육기간	연중 주말반 운영
접수방법	전화접수 (T.051-714-3122), 홈페이지 접수확인 후 교육비 납부
교육인원	과정별 각 40명(전화 및 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마감)
교육장소	부산사직실내수영장(부산)
교육비	금500,000원 (교재비, 시설이용료 경비 포함, 숙식비 본인부담)
문의처	한국해양구조협회 T. 051-714-3122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https://imsn.kcg.go.kr



해양경찰청지정 교육기관
한국해양구조협회



마린하우스 Marine House

**스포츠용품, 산업안전용품
수상안전용품, 선용품 등 토탈서비스**



스포츠 용품



물놀이 용품



해양안전용품



선용품



산업안전용품



합성나무데크용품



보건의료용품



소방안전용품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지해변길 95(동삼동)

T. (051) 341-4949 M. 010-6439-1119 E. rcbusan@naver.com